

# 남성이 죽어간다!



이찬휘 SBS 과학정보부장

**의**료현장을 취재한 지 이제 7년이다 되어 간다. 지난 7년 동안 수많은 의학 리포트를 했다. 그런데 방송 기사는 현장을 찾아가야 한다. 현장 화면이 있어야 뉴스를 만들어 시청자에게 보여 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술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소독된 수술복으로 갈아 입고 마스크에 모자를 쓰고 수술실을 수 없이 들어가야 했다. 응급실은 물론 중환자실, 특히 늘 마음이 찢어지는 현장인 신생아 중환자실도 수십 번 취재했다.

또 특정 질병을 취재하려면 그 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직접 만나야 한다.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암 환자를 만나 인터뷰를 하면서 같이 울기도 했고 13년만에 아들을 낳은 산모를 만나 같이 춤도 쳤다.

뇌졸중으로 쓰러져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던 분, 엄청나게 썩어갈 때 때문에 세상 살기가 싫었던 비만 여성, 숨이 넘어갈 듯 고통스럽게 숨을 쉬면서도 인터뷰에 응해 주셨던 COPD 환자, 감추고 싶은 병인 요실금으로 고통 받던 주부님, 모두들 자신의 모습을 내놓기 어려울 텐데 인터뷰에 응해 주셨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난 주에는 정말 용기 있는 환자를 만났다.

대한남성과학회에서 새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발기부전에 관한 것인데 이 취재를 하기 위해 만난 남성이었다. 우선 대한남성과학회의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국내 40대 이상 남성 2명 중 1명 꼴로 '남성 건강의 적신호'로 알려진 발기부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남성과학회(회장 김제중)가 발표한 '국내 발기부전 대규모 역학조사' 1차 결과에 따르면 40대 이상 남성 중

49.8%가 발기부전 증세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전국의 40~80세 남성 1천570명을 대상으로 지난 4~7월 면접조사 형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령별 발기부전 비율은 40대 33.2%, 50대 59.3%, 60대 79.7%, 70대 82%로 나이가 많을수록 발기부전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가정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40~50대 중년층 역시 절반 정도(46.2%)가 발기부전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정말 충격적인 조사 결과였다. 40대 이상의 남성 두 명 중 한 명이 남성 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취재를 위해 만난 남성 환자는 40대 초반이었지만 수심이 가득한 얼굴과 무엇인지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모습에 10살은 더 들어 보였다. 우선 인터뷰에 응해 주신 용기에 깊은 감사를 드렸다. 얼굴은 물론 음성도 변조시켜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다. 우선 증상에 대해 물었다.

"갑자기 부부 관계를 하다가 남성이 죽었어요. 깜짝 놀랐죠. 우연히 그랬겠지 했지요. 그런데 일주일 후 다시 하려는데 또 죽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다음부터는 무서워서 할 수가 있어야지요. 집사람이 처음에는 바람 피는 거 아니냐고 이상하게 생각했지요. 그런데 갈수록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또 물었다.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죽고 싶었지요. 왜? 내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제 인생은 끝났구나. 나에게서 절대 그런 일이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남의 일로 생각했는데, 내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서글펐지요. 남자로서 다 됐구나. 서글펐어요. 그 심정 말로 못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도 하는 문제가 이런 거였구나 생각했죠. 정말 괴로웠습니다."

"부인의 반응은 어떠셨습니까?"

"처음에는 의심을 했지요. 하지만 사실을 알고 몸에 좋다는 거라면 뭐든지 먹었습니다. 뱀, 개소주, 자라, 물개 안 먹어 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집사람과 사이가 점점 나빠지더라고요."

"부인과 사이가 나빠지셨다고요?"

“내가 그러니 자꾸 집사람을 피하게 됐지요. 일부러 술 먹고 늦게 들어가 집에 가자 마자 피곤하다고 한마디 대화도 없이 자고, 친구 만나다면서 늦게 들어가고, 상가에 다녀온다고 안 들어가고, 일주일에 거의 하루도 빠지 않고 늦게 들어갔지요. 나중에는 집사람이 정말 다른 여자 생긴 거 아니냐고 다그치기도 했어요.”

“병원 가실 생각은 못 하셨나요?”

“병원이요? 일단 이런 병에 걸린 것을 인정하기가 무지 싫더라고요. 병원에 간다는 건 인정하는 거니까 갈 수가 없었죠. 그런데 집사람과 상의해 결국 오게 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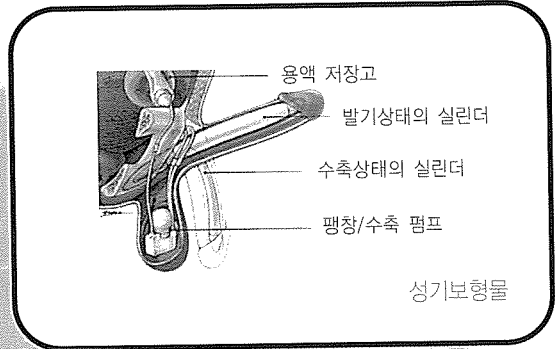
이 환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지 3개월 만에 성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제 부부관계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부부관계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되니까 매사에 자신이 생겨 하는 일도 너무 잘 된다고 기뻐하셨다. 인터뷰 마지막 말은

“발기부전으로 고통 받고 계신 남성분들 하루라도 빨리 병원을 찾으세요. 정답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남성들은 살아가는데 성생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89%나 된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31개국 중에서 1위이다. 사실 남성들은 몸에 좋다는 것은 뭐든지 먹지 않는가? 그런데 문제는 그만큼 성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막상 문제가 생기면 선뜻 병원을 찾지 못한다는 것이다. 성생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의사에게 상담을 받는 사람은 2%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전세계에서 꼴찌이다.

그런데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하는 중요한 원인이 있다. 발기부전이 성인병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가진 분들은 반 수 이상이 발기부전 환자이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에 걸렸는데 발기부전이 먼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병원을 찾아 원인을 알아내면 성인병을 미리 예방하고 조기 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

발기부전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스트레스이다. 복잡한 세상살이, 인간 관계 특히 요즘처럼 경계가 안 좋을 때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게 된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방법인데 쉬운 일은 아니다. 다음은 흡연이다. 담배에 들어 있는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성기



로 들어가는 혈액을 막아 발기부전이 오게 할 수 있다. 또 과도한 음주도 원인 중에 하나이다.

발기부전의 치료법은 다양하다. 우선 먹는 약이 있다. 비아그라, 씨알리스, 레비트라 등 FDA에서 공인 받은 발기부전 치료약이다. 이 약들로 대부분의 환자들이 치료된다. 그런데 고혈압이나 심장병이 있는 분들은 이 약을 사용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고혈압이나 심장병 환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주사약이 있다. 성기에 직접 놓는 것으로 2~3시간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이 치료도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

그래도 안 되는 환자는 수술치료를 받게 된다. 성기에 두 개의 관을 심어주는 최신 수술이다. 두 관으로는 식염수가 드나들게 되는데 식염수 창고는 방광 밑에 설치하고 펌프는 고환 속에 넣어둔다. 그리고 부부관계를 할 때는 고환의 펌프를 두 세 번 눌러주면 식염수 창고에 있던 식염수가 관으로 들어가면서 성기가 일어서고 반대로 한 번 눌러주면 식염수가 창고로 빠져나가면서 죽어버리게 된다. (그림 참조)

그런데 뭐니 뭐니 해도 예방이 중요하다. 발기부전을 예방하는데 가장 좋은 보약은 꾸준한 운동이다. 우선 담배를 끊어야 한다. 발기부전 환자 가운데 담배 피우는 사람이 안 피우는 사람보다 3배나 많다고 한다. 운동은 30분 이상씩 매일 해야 한다. 등에서 땀이 흐를 정도로 해야 한다. 걷기,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산 등 다 좋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숨기려고 하지 말고, 특히 부부가 같이 대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본다고 한다. ☺